



실로암 한인 침례 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SBC)

July 19, 2026, 10:30 a.m.

Ordinary Times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siloamkbc.org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www.siloamkbc.org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C1008 거룩한 땅에 우리 서 있네 We Are Standing on Holy Ground!

H301 지금까지 지내온 것 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C1207 은혜 Your Grace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마태복음 Matthew 13:24-30, 36-43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가라지의 비유 The Parable of the Weeds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620 여기에 모인 우리 We Will Keep Our Faith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지난 주 신도 사무 총회에서 이낙원 선교사에게 \$1,500 지원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도 사무 총회

- 예배 장소 이전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교회를 위하여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
- 자녀들
- 주위에 전도 대상자
- 여행하는 분들
- 권세자들

THE FIRST LESSON 창세기 GENESIS 28:10-19A

- 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 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시편 PSALM 139:1-12, 23-24

- 1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1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23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본문 함께 살펴보기

로마서 8 장 12-25 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후 어떤 신분으로 변했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육신의 종노릇을 하며 영원한 죽음과 두려움 속에 살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의 보혈로 씻겨 침례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음을 성령님이 친히 증언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유업이 약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치러야 할 신앙의 고난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함께 나누어 져야 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육신의 아픔이나 세상의 고통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무한한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인간의 죄로 인해 함께 고통받고 있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여줍니다. 자연 만물도 죄의 저주 아래에서 썩어짐에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역시 몸의 구속, 즉 아픔과 눈물이 없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첫 번째 주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녀됨의 신분과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침례의 자리에 나아간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빙박이나 두려워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정죄감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친밀함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완전한 용납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난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광과 상속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외로움, 질병, 박해의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겪는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받을 하늘의 기업을 증명하는 자녀의 징표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영광은 이 땅의 고통을 잠재우고도 남을 만큼 찬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온전한 구원을 향한 창조세계의 탄식과 인내의 소망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인간의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깨어진 모든 자연 만물과 우리의 죽을 몸까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우주적 회복입니다. 비록 지금은 온 세상이 아파하며 탄식하고 있지만, 이 탄식은 죽음의 비명이라 아니라 새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완전한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끈기 있게 견뎌내는 소망을 배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중장년기와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잘못이나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적인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건강의 약화나 경제적인 불안정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고 침례로 새사람이 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녀의 영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며,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아픔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화로 인한 육체의 고통이나 가정 안의 기도 제목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 쉽지만, 성령님은 이것을 장차 맞이할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향한 "거룩한 탄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형벌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다듬음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위로나 보상에만 소망을 두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 결국 다 낡아지고 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입니다.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고 삶의 형편이 단번에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인내와 감사로 채워나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지혜입니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당신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친밀함과 사랑을 깊이 느끼고 계신가요? 삶 속에서 영적인 두려움이나 정죄감이 찾아올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의지하며 이겨내셨는지 나누어 보세요.
2.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근에 겪고 있는 육신의 아픔이나 삶의 지치는 고난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끈기 있게 인내해야 할 내 삶의 영역은 어디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침례를 통해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외로울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늘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겪는 현재의 고난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찬란한 천국의 영광과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도 서로를 격려하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